

---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출장기간 : 2024.3.1.(금)~ 3.9.(토)/ 7박 9일

출장지 : 베를린(독일), 브뤼셀(벨기에), 암스테르담(네덜란드)

출장자 : 한상헌 책임연구위원, 윤설민 책임연구위원

## 1. 출장목적

- 대전문화예술중흥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 조사
-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공간, 문화예술 활동 선진 사례 견학
-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청취와 현황자료 수집

○ 대전의 문화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대전의 도시품격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임. 본 연구용역은 특화조성 예정 중인 문화예술창작향유공간의 운영방안,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방안이 총체적으로 집약되고 장기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마련해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지님.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수행진은 대표적인 해외 선진사례들을 생생히 목격하고 특성과 함의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심층성을 높이고자 함

○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역사 문화 유산 뿐만아니라 전자음악, 전위미술 등 현대예술의 대표적 배태지이며, 세계 각지에서 젊은 예술인이 유입되어 현대문화의 유행을 선도하는 집산지로서 많은 문화연구자들이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이 나라들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활동 특성, 예술창작과 향유공간의 특성,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전 문화예술중흥전략 수립에 참조사례로 삼기 위하여 공무 국외여행을 계획하였음

2. 출장기간 : 2024.3.1.(금)~ 3.9.(토)/ 7박 9일

3. 출 장 지 : 베를린(독일), 브뤼셀(벨기에), 암스테르담(네덜란드)

4. 출 장 자 : 한상헌 책임연구위원, 윤설민 책임연구위원

## II

## 출장 일정

일자	시 간	도시	세부 일정
2.29 (금)	23:00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국제공항(ICN)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공항 도착</li> </ul>
3.1 (금)	전일	베를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를린 브란덴부르크공항 도착</li> <li>한국연구재단 베를린 사무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담회: KIC유럽센터 최원근 사무국장</li> <li>- 아티언스 청년예술인 국제교류 방안 협의</li> </ul> </li> </ul>
3.2 (토)	전일	베를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를린 “East Side Gallery”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미술프로젝트 사례 조사</li> </ul> </li> <li>벙커갤러리(Sammlung Boros), 현대미술관(KW ICA)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공장 등 문화예술적 도시재생 사례 조사</li> </ul> </li> <li>전위예술공간(Kunsthaus Tacheles, Neugerriemschneider)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창작활동 “Art Forum Berlin” 사례조사</li> </ul> </li> </ul>
3.3 (일)	전일	베를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rlin Art Week 개최 장소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대표 축제 운영 사례 조사</li> </ul> </li> <li>“Museumsinse(베를린 박물관 섬)”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w national gallery”, “베를린 필하모니” 등 음악전용홀 조성 및 예술마켓 운영사례 답사</li> </ul> </li> </ul>
3.4 (월)	오전 - 오후	베를린 - 브뤼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 베를린 ⇨ 벨기에 브뤼셀 / 고속열차 이동</li> <li>브뤼셀 광장</li> <li>벨기에 만화센터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콘텐츠의 세대별 OSMU 전략 조사</li> </ul> </li> </ul>
3.5 (수)	전일	브뤼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TRA 브뤼셀 무역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담회: KOTRA Brussels 임태형 관장 외</li> <li>- 지역 예술작품 국제 거래 활성화 방안 협의</li> </ul> </li> <li>벨기에 왕립미술관 및 마그리트미술관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 미술관 및 1인미술관 특화 운영 사례 조사</li> </ul> </li> </ul>
3.6 (목)	오전 - 오후	브뤼셀 - 암스테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벨기에 브뤼셀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기차 이동</li> <li>“렘브란트의 집”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명 미술가의 창작 공간 재현 사례 청취</li> </ul> </li> </ul>
3.6 (목)	전일	암스테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덜란드 왕립미술관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미술관 특화 운영 사례 조사</li> </ul> </li> <li>네덜란드 “국립 오페라 발레”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전용홀 특화조성과 오페라단 운영사례 조사</li> </ul> </li> <li>암스테르담 NDSM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유산의 재활용 문화공간 재생 사례 조사</li> </ul> </li> </ul>
3.8 (금)	11:00	암스테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 출발</li> </ul>
3.9 (토)	14:00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AMS) ⇨ 인천국제공항(ICN) 도착</li> </ul>

### Ⅲ

## 출장 내용

### 1.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면담

#### 1) KIC 유럽센터(한국연구재단 베를린 사무소) 방문 간담회

##### (1) 면담자

- KIC Europe GmbH 최원근 사무국장

##### (2) 면담내용

- 베를린 문화예술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 현황 브리핑
- KIC 차원에 문화콘텐츠 관련 수출 등 가능성에 대한 논의
- 주독일 한국문화원의 K컬처 확산 활동에 대해 청취하였고, 대전이라는 지자체와 KIC의 지원 사업 간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질의
- 자연과학이나 인문학 분야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재단의 기존 지원 정책 방향에 더해 아티언스, 예술평론 등 신진예술인들의 지식집약적 창작활동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실현방안을 검토



## 2) KOTRA 브뤼셀 무역관 방문

### (1) 면담자

- KOTRA 브뤼셀무역관 임태형 관장, 최태영 마케팅 담당 팀장

### (2) 면담내용

- 벨기에의 문화예술 관련 산업 동향 청취. 특히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 전략, 원 소스 멀티 유즈 전략의 특성을 청취하고, 벨기에-일본 간 산업 협력 방안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청취.
- KOTRA 차원에서 문화예술 지원이나 산업 연계 등에 대한 방향성 논의. 대부분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에 비춰 지역 문화예술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 진흥 방안과 국제적 활로 개척을 KOTRA에서 좀 더 고려해 달라고 주문하고, 향후 대전과 문화예술 측면에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문화사업 분야에 대하여 검토



## 2. 문화예술인 및 시민 주도 문화예술진흥 사례

### 1) 베를린 Art Week

#### (1) 일반현황 및 배경

- 베를린은 독일 북부에 위치한 독일의 수도로 면적 891.85 km<sup>2</sup>, 인구수 약 380만 명의 유럽 내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임.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991년 베를린으로 수도이전이 결정되고 1999년 수도이전이 완료됨. 그러나 수도 이전 결정 이후 동서베를린 분단 시기에 형성된 구조적인 문제와 동독의 경기침체로 인한 베를린 주변의 지역시장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는 일 자리와 인구의 심각한 감소로 이어져 도시쇠퇴현상이 일어남
-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도심 내 버려지고 방치된 건물을 아티스트들이 점거하여 아트스튜디오로 사용하는 일이 증가하고 도시 내 유희공간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자 다양한 국가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아트 스튜디오, 갤러리,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도시경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낮은 물가로 젊은 층, 이민자, 예술가가 모여 이들의 거주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 성소수자, 예술가의 문화가 충돌하고 뒤섞이면서 베를린의 실험적이고 도발적인 아트씬(Art Scene)이 발전하게 됨
- 베를린 전 시장 Klaus Wowereit는 2001년 그의 첫 시장 선거 유세에서 - “Ich bin schwul und das ist auch gut so(나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좋아요.)”- 라는 커밍아웃 발언과 함께 당선이 되면서 베를린은 헝하고 관용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얻음
-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음반사 중 하나인 Universal Music의 본사와 MTV,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국제 무역 박람회 Popkomm이 베를린으로 활동무대를 이전하면서 베를린시에 창의적인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작의 분위기를 형성함
- 문화경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된 Creative City Berlin 웹사이트의 개설, 박물관 포털, 베를린 아트워크, 베를린 뮤직워크 등의 업무를 경제, 문화, 교육, 도시개발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진행함

- Berlin Art Week은 베를린 소재 아티스트, 갤러리, 예술기관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연결하는 동시대미술의 중심지로서 Art Platform의 기능을 목표로 2012년 첫 행사를 개최함
- Art Berlin Contemporary, Preview Berlin Art Fair 이 외에도 동시대예술을 소개하는 베를린의 주요 예술기관인 Nationalgalerie, KW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등 저명한 예술기관과 대학이 대거 참여하여 각 장소에서 전시와 예술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대규모 예술행사임. 오픈에어(Open-Air)행사, 전시, 퍼포먼스, 아티스트 토크, 워크샵, 콘서트, 야외영화이벤트, DJ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 2012년, 11명의 파트너사가 참여했던 첫 행사는 100곳 이상의 파트너, 1000명 이상의 국제적인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이어짐

## (2) 주요 시설 및 성과

- 베를린 아트위크와 협업하는 파트너사의 수와 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미술관, 전시장, 아트페어, 개인컬렉션, 프로젝트공간, 갤러리 등 행사진행기간동안 공간을 개방하여 소속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거나 개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또는 아트페어에서 소개하기에 대해 행사장소와 그 수가 달라짐.
- 아트위크의 자매파트너 행사인 Positions Berlin은 템펠호프 공항 내 홀에서 진행됨
- 2023년 베를린 아트위크 행사 일부 내용
  - 100곳 이상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참여하여 제도비판, 전쟁, 예술의 AI·디지털화 등의 테마 아래 사회, 정치, 환경운동의 현재를 다룸
  - 아트페어 Positions Berlin은 그로피우스 바우, 함부르크 반홉 미술관을 포함하여 20여 국에서 온 100곳의 갤러리, 패션 디자이너, 떠오르는 아티스트 등의 작품을 소개함



〈그림〉 템펠호프공항 내 홀에서 진행된 Positions Berlin 2023

자료출처: Positions Berlin 공식홈페이지(<https://positions.de/id-2022.html>)

- 발전소로 쓰였던 공간을 라이브 공연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한 Kraftwerk에서 뮤직 페스티벌 베를린 아토날(Berlin Atonal) 개최
- 베를린 신 국립 미술관(Neue Nationalgalerie) 앞마당을 BAW Garten(Berlin Artweek Garden)으로 리모델링하여 아트위크 오프닝 행사와 미팅포인트로 활용



[그림] 2023년 베를린 아트위크 오프닝

자료: 베를린 아트위크 공식 홈페이지

- BAW Garten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요가, 푸드아트, 아티스트 토크, 아트퍼포먼스, DJ공연, 야외영화관람(Open Air Kino), 투어, 워크샵 등
- 아트위크기간 주말에는 2년마다 열리는 베를린의 대표적인 예술행사 중 하나인 갤러리 위켄드(Gallery Weekend)가 함께 진행됨
- Wilhelm Hallen: 20개 이상의 갤러리가 모여 'Hallen#4' 전시 진행





Willhelm Hallen에서 진행된 Hallen#4 전시

- 2013년 두 번째 아트워크행사에 8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2016년 10만 명 이상, 2023년 1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여 관광유치에 기여함. Covid-19가 발생한 2020년에도 행사를 그대로 진행함. 그해 독일의 대표적인 컬렉터 Boros의 Sammlung Boros는 베를린의 상징적인 클럽 Berghain과 협업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전 STUDIO BERLIN 전시를 진행함

### (3) 운영 방식

- 베를린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Kulturprojekte Berlin이 주관함. 행사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디테일한 부분을 계획하고 진행함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베를린 시립 가스회사(GASAG)가 메인스폰서로 후원하였음. 2023년부터 3년 간 새로운 메인스폰서인 베를리너 폴크스뱅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될 예정임

### (4) 지방정부의 역할

- 2002년 21,000곳 이상의 문화산업부문 중소기업이 약 100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베를린 경제 부가가치의 13.6% 수익을 달성한 후, 2004년 베를린 상원은 문화산업부문 모든 민간기업을 포함한 문화경제이니셔티브(Kulturwirtschaftsinitiative)를 발표하면서 문화와 창조산업에 집중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설정함

- 베를린의 문화 및 창조산업부문의 연간 매출액과 기업 수, 일자리 창출률 등의 성장률은 다른 지역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25%의 수익이 증가했으며, 문화산업기업은 낮은 임대료 혜택을 받음.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에도 베를린시는 문화산업부문에 꾸준히 지원을 하여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임
- 베를린시 노동사회국은 2008년 실업률이 높은 예술가의 근로조건 개선, 예술적 작업이 필요한 공공업무 확충, 문화예술분야 활동가와 문화예술기관의 안정적인이고 지속적인 발전 도모, 문화예술분야 단기 프로젝트 지원, 예술·창의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화 아르바이트팀’을 설치함
- 베를린시는 2014년부터 부과한 도시세로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예술가, 전업예술가를 지원함
- 베를린 경제, 에너지 및 공기업 상원(Senatsverwaltung für Wirtschaft, Energie und Betriebe)은 2012년 베를린 아트위크 첫 행사부터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문화 및 사회통합 상원(Senatsverwaltung für Kultur und Gesellschaftlichen Zusammenhalt)가 함께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베를린대중교통공사(BVG)는 팬데믹 기간동안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약 7주 간 문화티켓(Kultur-Ticket)을 발행함. 기존 3유로인 대중교통티켓 금액에 1유로를 추가로 지불하여 구매하는 시스템임. 베를린대중교통공사는 문화티켓을 홍보하고자 베를리날레 전 집행위원장 디터 코식(Dieter Kossick), DJ 알레 파르벤(Alle Farben), 배우 스테파니 스타펜벡(Stefanie Stappenbeck) 등과 함께 캠페인 영상을 제작함. 프리랜서 예술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 베를린시와 베를린 자유예술인연합(Verein Bündnis Freie Szene Berlin e.V.)과 협업함



문화티켓 홍보 캠페인 영상

## 2)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베를린 장벽 일부에 조성된 아웃도어형 미술 갤러리로,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1km 이상 조성된 곳임
- 길이로 보았을 때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야외 갤러리로 100개 이상의 작품 관람이 가능한 상황임
- 눈에 띄는 것은 ‘형제의 키스’와 같이 유명한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의 품질이 우수하고, 이를 위해 기관(East Side Gallery) 차원 공공 벽화를 관리하고 있음
  - 거리 벽화를 공공예술프로젝트로 승화하여, 신진예술인들이 벽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예술세계를 일반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작품마다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리(키오스크, QR코드 등)
- 무료로 관람을 하는 곳이지만, 이곳 주변으로는 상권(East Side Mall, Mercedes-Benz Arena Berlin)이 잘 조성되어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문화예술 목적지라고 할 수 있음



## 3) 문화콘텐츠의 세대별 OSMU 전략 : 벨기에 만화센터

- 땡땡, 스머프와 같이 많이 알려진 만화 캐릭터를 보유한 벨기에의 특성이 잘 반영된 곳으로, 벨기에 만화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음



- 작품 수로는 7,000점 이상 소장 및 전시가 되어 있고, 전시물 이외에 그림과 영상 등을 볼 수 있으며, 중간중간 캐릭터 조형물이 있어 포토 스팟으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세계 최고의 만화 강국이라는 벨기에의 위상에 비춰 볼 때 일부 일본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 벨기에에서 창작된 만화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 웹툰클러스터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에서 만화의 역사와 특성 전반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시관이 조성된다면 부천 만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세계적 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 3. 문화예술 특화 사례

#### 1) 1인 미술관 특화 운영

##### (1) 마그리트 미술관

- 초현실주의 예술가로 유명한 르네 마그리트 미술관에는 200개 이상의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 전시된 곳임
- 지상 3층 높이 건물에는 1898년부터 1967년까지 시대별 마그리트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삶과 예술적인 철학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미술관 내에는 마그리트 작품을 활용한 기념품숍이 있어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 미술관 주변은 브뤼셀 왕궁이 있어 관광 목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미술관 입장권 이외에도 벨기에 왕립 미술관 등과 결합한 통합권 등을 이용하여 관람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2) 렘브란트의 집

- 세계적 화가 렘브란트의 집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곳으로, 1639년부터 약 20년 정도 해당 집에서 렘브란트가 거주하였음
- 집을 개조하였기 때문에 부엌, 응접실 등이 그대로 있고, 렘브란트의 제자들을 가르치던 장소 또한 그대로 복원하여 활용하고 있음

- 렘브란트의 작품 이외에 작품 활동에 사용된 도구, 소품, 식기, 석고상, 조각상 등의 다양한 수집품을 볼 수 있음



## 2) 역사적 공간의 문화 명소화 집적을 통한 콘텐츠 전략

### (1) 훔볼트대학 주변 베를린 박물관

- 유서깊은 박물관들이 밀집한 베를린 박물관 섬은 훔볼트대학과의 인접성이 치를 더함. 역사가 오래된 만큼 훔볼트대학에는 전시관뿐만 아니라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 이외에도 박물관이 있어 대학과 도시의 역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아울러 박물관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프리마켓을 찾아볼 수 있으며, 품목 또한 그림, 액서서리, 아이디어 상품 등 주로 수작업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 외에도 고서적, LP판 등 문화예술적으로 판매 가치가 높은 희귀 상품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진열되어 있어 보는 재미를 가미하고 있음

## (2)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 사전 예약을 통해 시간 단위로 입장이 가능한 국립미술관으로, 독일의 건축가 카이퍼스가 만들었으며, 1885년 처음 개관 후 약 8,000여점의 회화, 유물, 예술품 등이 전시되어 있음. 특히 렘브란트, 요하네스 베르메르, 프란스 할스 등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
- 국립미술관 주변에는 반고프 미술관 등 미술관이 클러스터 형태로 위치하고 있으며, 트램 등의 접근성이 좋아 암스테르담의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미술관 사이에 뮤지엄 광장이라는 큰 공원이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음



## 4. 문화공간의 재생을 통한 도시 활성화

### 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NDSM

○ 역사권 재생과 공공공간의 조성, 산업유산의 재활용화

- 네덜란드 조선회사 본부가 있던 약 100,000평의 대규모 부지를 근대건축유산으로 일부 지정, 보호하며, 예술가들과 민관협력으로 문화예술중심지로 개발
- 형형색색의 대형컨테이너들과 실제로 컨테이너를 운반할 때 사용되었던 크레인 등을 개조한 '크레인 호텔'이 유명

식당, 카페등의 편의시설과 아트프리마켓, 축제, 대형이벤트 행사, 예술전시 등 운영

- 크레인 호텔 : 라운지, 수영장 등 부대시설과 함께 단 3개의 객실만 보유





## 2) KW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 현대 미술을 주제로 실험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 뮤지엄임
- 내부 전시관 이외에도 주변에 다양한 카페가 있어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음
- 대전시도 테미오래나 헤레디움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장소 일부를 시민들이 즐겁게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카페 등의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IV

### 출장성과(또는 기대효과)

○ 현대 전시와 공연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선진 사례의 특성을 조사하여, 대전의 문화예술축제, 공연장과 전시장 운영 등의 특화 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음

○ 과학문화예술 중심의 국제교류 방안, 예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제사무소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자문을 통해 대전의 청년예술인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음

○ 추진 주체의 특성에 따라 성과와 운영방식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성공적인 해외 사례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음

- 추진 주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임. 추진주체가 예술가 집단이나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해외 사례의 경우 문화예술인 집단과 지방정부, 시민 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잘 정착되었다는 점도 성공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문화예술 기반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한 사례의 경우 산업 쇠퇴로 슬럼화된 도시의 활력을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우임.

- 추진주체가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인 경우 특정 문화 예술 분야의 기업의 명성으로 도시가 활력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도시 문화거점 형성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 전체의 문화예술을 부흥시키는 사례도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 진흥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